

끝 안보이는 코로나발 고용충격...정부는 “회복 중”

6월 취업자 35.2만명 감소...실업률, 공무원시험 재개로 실업자 사상 최악 계절조정 취업자 2개월 연속↑...“57.5만개 직접일자리 신속 추진·제공”

실업률이 역대 최고로 치솟고 취업자가 4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 고용충격이 계속 이어졌다.

정부가 긴급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계절조정 취업자가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아직 코로나19 발생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조금씩 고용상황이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 6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5만2000명 감소해 3월 19만5000명 감소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취업자가 줄면서 15세 이상 고용률은 60.4%로 하락한 반면 실업률은 공무원시

험 재개로 20대 실업자가 크게 늘면서 4.3%로 치솟았다. 6월 기준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다.

상용직 증가폭이 축소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폭도 줄어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개선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수출부진으로 업황이 악화되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취업자 감소폭이 최대로 증가했다.

임시일용직 취업자 감소세가 계속되고 숙박음식업 등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은 업종의 취업자가 계속 줄어들면서 코로나발 고용위축은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코로나발 고용쇼크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고용상황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희망적인 평가를 내렸다.

계절조정 취업자는 3월, 4월 각각 68만

명, 33만8000명 감소했으나 5월과 6월 각각 15만3000명, 7만9000명으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감소폭도 4월 47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5월 39만2000명, 6월 35만2000명으로 미약하나마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코로나로 100만명대로 늘어난 일시휴직자의 경우 6월 72만9000명을 기록하며 두 자릿수로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취업자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4월을 저점으로 코로나19 충격에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작년과 비교한 취업자 감소폭이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줄어들고 있다”



며 “고용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지난 4월에 비하면 두 달 연속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6월 고용지표가 혼조 속에 회복세를 보았다면 정부 고용대책이 본격 시행되는 7월에는 고용상황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7월부터)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57만5000개 직접 일자리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에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고 한국판 뉴딜을 통해 190만개 새로운 일자리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유나 기자

현대차,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6위...기아차는 7위 ‘선방’

현대차, 올해 1~5월 2만6500대 판매...점유율 3.7%
코로나 여파로 전 세계 시장 대거 위축됐지만 성장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대거 위축된 가운데 현대·기아차는 지난해보다 시장점유율을 높이며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SNE리서치는 현대차의 올해 1~5월 전 세계 시장에서 순수전기차(EV)와 플

러그인하이브리드(PHEV) 판매량이 2만6500대로 전체 기업 중 6위, 기아차는 2만4600대로 7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 줄었으며, 기아차는 15.5% 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지난해보다 20.3% 역성장한 점을 고려하면 선전했다는 평가다.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은 3.7%, 기아차는 3.5%로 양사의 합산 점유율은 7.2%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현대차는 3.0%, 기아차는 2.4%의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늘어났다.

현대차는 유럽 시장 판매 감소로 전체 판매량이 소폭 줄었지만, 감소율이 시장 평균보다 크게 낮아 전체 순위가 세 계단 올랐고 점유율도 늘어났다. 기아차는 시드 PHEV와 붕고 IT EV, 엑시드 PHEV 판매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14위에서 7위로 급등했다.

1위의 테슬라는 모델3 판매 증가로 12만5800대를 판매해 17.7%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위였던 중국의

BYD는 자국 시장 집체로 3위로 밀려났으며, 닛산도 리프 판매가 부진하면서 전년 동기 4위에서 10위로 크게 떨어졌다.

폭스바겐은 파사트 GTE와 e-Up! 신버전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순위가 전년 동기 18위에서 4위로 뛰어올랐다. 르노와 아우디, 볼보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순위와 점유율이 올랐다.

5월 한 달 동안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약 14만대로 전년 동월 대비 28.7% 감소했다. 미국과 유럽, 중국 시장 모두 신종 코로나 여파에 따른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컸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 그룹과 관련한 브랜드를 제외한 모든 업체들이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아차와 현대차는 감소율이 시장 평균을 밑돌아 각각 3.1%·3.0%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6위·9위에 올랐다.

SNE리서치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침체 영향이 현대·기아차에도 미치고 있지만 선방하고 있는 양상”이라며 “시장 추이에 맞춰 기초 경쟁력 배양에 힘쓰고 적절한 성장 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상반기 外인직접투자 22%↓ 77억달러
6년 연속 200억불 ‘적신호’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지난해보다 22.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를 뒤쫓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외부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연간 FDI 6년 연속 200억달러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가 신고가 76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4%가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착기준으로는 23.9% 감소한 47억달러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던 2018년 상반기의 157억5000만달러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최근 10년 평균인 89억8000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한 저조한 실적이다.

2월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코로나19 국면에서 국경 간 이동제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글로벌 FDI가 감소했고, 우리 FDI도 본격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소폭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 1분기 FDI가 35.5% 감소했고, 일본은 무려 80.9% 급감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올해 전 세계 FDI가 전년 대비 40% 감소한 1조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반기의 저조한 실적에 인해 6년 연속 200억달러 달성도 쉽지 않아졌다. 우리나라는 지난해(209억1000만달러)를 시작으로 2016년(213억달러), 2017년(229억5000만달러), 2018년(269억달러), 2019년(233억3000만달러)까지 5년 연속 연간 FDI가 200억달러를 넘겼다. 이 기간 동안 상반기 FDI가 80억달러를 넘기 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정부는 하반기 긍정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투자 유치에 이끌어 내 6년 연속 200억달러 달성을 이룬다는 각오다.

박정숙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각 국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대응되느냐에 따른 변수가 크기 때문에 예측은 쉽지 않다”면서도 “통상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외부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만큼 최대한 많은 실적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8월부터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등 긍정적 요인이 있다. 개정안은 외부기업의 미շ출 이익잉여금을 외국인직접투자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 상반기 외부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언택트 분야에 새로운 투자가 많아진 것이 특징이었다.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와 관련된 투자와 이를 지원하는 물류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투자가 유망했다. 또 코로나19 대응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K 방역’ 성과에 기반한 의약·의료기기 분야 투자 사례도 증가했다.

전남농협, 탈퇴조합원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찾아주기 운동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31일까지 탈퇴조합원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찾아주기운동을 전개한다.

탈퇴조합원 중 출자금과 배당금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분환급 청구 안내통지서 발송과 안내전

화, 현지 방문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지역본부에서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시군지부와 지역연합 담당자에게 권역별 순회지도를 하고 있다.

환급 안내를 받은 탈퇴조합원은 전국 소재 동일업권 농·축협을 방문해 본인

확인(신분증 지참) 후 환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을 받으면 된다.

또한 탈퇴조합원의 주소지가 변경돼 미환급 지분이나 배당금 안내 통지서가 반송된 탈퇴조합원들에게는 행정안전부

로부터 최신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아 해당 농·축협에서 안내 통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개인이 농협포털,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과인'이나 '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석기 본부장은 “이용객 권익보호와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밀키트, 차박을 만났다”...GS리테일X기아차, ‘코로나 마케팅’



GS리테일이 기아자동차와 손잡고 ‘밀키트’와 ‘차박’을 합친 이색 협업에 나섰다. 메가 트렌드로 부상한 캠핑과 밀키트를 결합한다는 ‘코로나 마케팅’이다.

GS리테일은 자사 밀키트 브랜드 ‘심플리릭’과 기아자동차 소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셀토스’를 테마로 협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밀키트와 자동차의 ‘엄동한 클래식베이션’은 공교롭게도 코로나19 사태로 선사됐다. 나 홀로 캠핑을 떠나 밀키트로 식사를 하는 ‘차박’이 인기를 끌면서 어울리지 않았던 밀키트와 자동차가 ‘언택트’라는 공통점으로 뭉쳤다.

GS리테일과 기아자동차는 첫 협업 상

품으로 한정판 보랭백 5000개와 심플리릭 베스트 밀키트 1000개를 지급하는 경품 행사를 연다. 보랭백은 심플리릭과 셀토스의 디자인과 색감을 담아 제작했다.

한정판 보랭백 증정 행사는 GS리테일 온라인몰 ‘GS프레시몰’에서 진행된다. GS프레시몰에서 심플리릭 상품을 3개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기아자동차도 오는 26일까지 ‘셀토스와 함께하는 나만의 주말 계획’을 주제로 캠핑·나들이 행사를 진행한다. 기아자동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생사를 참여하면 무작위로 500명에게 심플리릭 베스트 상품을 증정한다.

장효정 심플리릭 마케팅 담당자는 “GS리테일은 다양한 가능성과 동력을 찾는 데 항상 주력하고 있다”며 “이번 기아자동차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지속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차박 뜨면서 캠핑·밀키트 수요↑
CG리테일 ‘심플리릭’과 기아차 ‘셀토스’ 협업

로부터 최신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아 해당 농·축협에서 안내 통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개인이 농협포털,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과인'이나 '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석기 본부장은 “이용객 권익보호와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